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지원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제작지원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15:00~18:00
 - 2024년 12월 11일(수) 14:00~18:00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태암, 손수연, 이효진, 임수연, 임주섭

2025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_2차 제작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 중 호평받은 우수 작품을 2차 제작 지원하여 한국 창작오페라의 대표 레퍼토리로 견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오페라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실증단계를 거쳐 공연예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작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심의도 이 같은 목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연도 본 사업에 지원한 3개의 단체를 심의하기 위해 1차 서류검토 이후 심의위원 대면 심의로 진행하였고, 3건 모두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 지원작에 대해 심의위원단이 중점적으로 살핀 부분은 작품성(30%), 2차 제작의 타당성(30%), 예산편성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 등 4개 부문입니다. 지원작 세 작품 모두 이미 무대에서 공연을 거쳤고, 1차 검증을 끝낸 작품들이기 때문에 심의에서는 2차 제작 지원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즉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주로 보았습니다. 이미 공연된 지원작에 대해서 심의위원 중 일부는 현장 관람을 했던 경험 이 있었고, 심의 기간, 공연 실황 영상을 통해 작품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전문 비평가의 당시 비평문 또한 참고했습니다. 지원한 세 작품은 소재와 음악적 특성, 작품의 규모 등 성격이 각기 달라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웠으나 동시대 오페라의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작품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원작들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본바, 작품을 지속적으로 공연할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돋보였거나, 시의성 있는 소재를 통해 오페라의 사회적 역할을 주목하거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오늘의 한국 오페라를 창작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창작오페라의 큰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받는 대본과 음악의 부조화, 성악 예술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에 대한 문제가 지원작에도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각 단체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에 집중한 나머지 합리적인 예산 편성 등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공연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작품의 가장 큰 요인을 방향성에 대한 성찰로 말씀드립니다. 선정작을 제작한 단체는 오페라를 지속적으로 공

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을 이어나갈 지역의 문화 예술적 환경을 고려하고, 관객 유입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며, 향후 작품의 유통 및 확산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본 심의에 지원 작품들 모두 나름의 개성과 강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예술 시장에 들어서려는 창작오페라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알맞은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정작을 포함한 이번 지원작들이 한국 창작오페라의 대표 작품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심의위원 일동